

# 동료교수활동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Effects of peer teaching on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s and learning satisfaction among nursing freshmen

In-Sook J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약** 본 원시실험연구의 목적은 동료교수활동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30분간 12회의 동료교수활동 전후 측정된 설문조사결과를 SPSS 21로 기술통계, t-test, ANOVA와 paired t-test를 시행한 결과, 처치 전후 주관적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의 학업만족과, 토론 선호도가 보통 이하인 집단의 낙관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처치 전후 셀프리더십과 심리자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p=.002$ ,  $p=.044$ ), 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자신감과 복원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p=.006$ ,  $p=.015$ ). 결론적으로 동료교수활동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심리역량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료교수활동을 적용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동료교수활동, 간호학과 신입생,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학업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imitive experimental study was to find the effects of peer teaching on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s(hereafter, psycap)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The data measured before and after 12 times peer teaching for 30 minutes were analyzed with SPSS 21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aired t-test.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academic satisfaction of low subjective school grades group, and in resilience of below average prefer discussion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nd psycap before and after treatment( $p=.002$ ,  $p=.044$ ), confidence and resilience among sub-domains of psycap increased significantly( $p=.006$ ,  $p=.015$ ). Finally, peer teaching have increased self-leadership and psycap of nursing freshmen.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proposed to apply various types of peer teaching in nursing curriculum.

**Key Words** : Peer teaching, Nursing freshmen,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satisfact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 사회는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인재를 필요로 한다[1]. 그러므로 간호학계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자기관리전략 강화로 입학 후부터 경험할 대학생 활과 학업적응부담을 경감시킬 다각도의 방안마련이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leejung@naver.com)

Received July 28,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August 25,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필요하다[1,2].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전통적 리더십과는 달리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셸프리더십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역량은 계발될 수 있다는 새로운 리더십의 개념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전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셸프리더십이 강한 학습자는 스스로에게 의미있는 목표설정과 성취를 위해 인지 및 행동 조절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다[1]. 이러한 셸프리더십은 팀과제나 토론, 발표 및 자기성찰일지 등 교육을 통해 계발이 가능한 속성이므로[3] 간호대학생들이 셸프리더십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2].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계발이 가능한 속성 중 심리역량은[4], 조직 내에서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지만, 학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5] 교육계에서도 적용하여 연구해오고 있다. 심리역량은 성공적인 업무성취를 위한 개인의 긍정적이면서도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복합적인 심리자원의 통합개념이다[4]. 심리역량의 하위개념은,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여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감, 목표성취를 향한 의지와 방향을 설정하는 내면의 희망, 긍정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내면화하는 낙관성 및 문제나 장애상황에 직면 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복원력으로 구성되므로, 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긍정적 성향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간호학과 입학 직후부터 쉽지 않은 간호교육과정에 적응해야 할 간호대학 신입생들에게 심리역량 계발을 위한 중재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2,5].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인 학습자들의 학업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6]. 최근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업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7]. 학업만족이란 학업과정이나 학업의 결과에 가치를 느끼며 긍정적 정서를 갖는 것이다[1]. 단기간 내에 학업적 성취에 몰입하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의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자들의 학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6]. 이런 과정은 입학 직후부터 과

중한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학업 적응과 전문간호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을 도울 것이다[2].

일반적인 대학의 전통적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능력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내용의 수업이 교수자중심으로 이루어진다[8]. 따라서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 학습자들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더 심해진다. 동료교수활동은 학생들이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면서 동등한 학생입장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과 피드백을 수행하는 학습구조이다[7,8]. 동료교수자들은 동료학습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구조화하여 활용할 수 있고, 동료학습자들은 실제 교수가 아닌 친구 교수자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 따라서 동료교수자나 동료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고[7], 수업단위 내에서 소외되거나 흥미가 저하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호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학습법이다[9]. 동료교수활동에서 동료학습자들은 동료교수자로부터의 학습이 실제 교수자의 강의보다 편안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였고, 동료교수자들은 교수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만 교수과정이 자신의 학습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였다[7].

동료교수활동을 적용한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결과 학생들이 높은 참여도와 흥미를 보였고 특히 동료교수자 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8]와 같이, 다양한 중고등교육과정에서 적용한 사례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생들의 임상 세미나에서 적용된 동료교수활동은 장래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10]는 연구결과가 있다. 동료교수활동을 적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 간호술 수행에서 자신감과 숙련도를 증가시켰다는 보고[11]나, 간호학 이론학과목 수업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12]들은 동료교수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시사하며 교육과정에서 적용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료교수활동이 간호대학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셸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의 차이를 조사한다.
- 동료교수활동 전후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동료교수활동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설계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C도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2로 대응표본 t검정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 검정력 .80으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 수 71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 80명은 적정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12회의 동료교수활동과,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 측정을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 2.3.1 동료교수활동

본 연구에서 동료교수활동은 2학점의 B학과목 이수 과정 중 1회 30분씩 12주간 12회로 진행되었다. 80명의 대상자들이 4인 1조로 구성된 학습팀 내에서 3회의 교수자 역할과 9회의 학습자 역할을 수행함을 말하며 구체적인 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학습팀 구성 : 연구시작 전 자율적으로 4인 1조의 학습 팀을 구성한 후, 팀원 간 상호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동료교수활동의 내용 : 12회의 동료교수활동은 동료교수자가 숙지한 지난 주 수업내용을 팀원인 동료학습자들에게 가르침을 말한다. 동료교수자의 가르침 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 상호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동료교수자의 강의 중 누락된 부

분을 동료학습자들이 보충할 수 있다.

- 동료교수자 훈련 : B학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주 동료교수자들에게 매주 강의 후 강의 중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어 다음 주 교수활동에서 주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 동료교수활동의 과정 :
  - 학습팀 내에서 순서대로 진행된 동료교수활동은 모든 대상자가 3회의 교수자, 9회의 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동료교수자는 학과목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동료학습자들에게 지난 주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하되 동료교수자나 동료학습자 간 상호토론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 실험처치 수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동료교수활동 후 동료학습자들의 자신의 이해도 평가와 동료교수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평가결과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 2.3.2 처치 전후 설문조사

-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처치 전후 측정된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Dawley, DiLiello(2012)의 ASLQ(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박지윤[1]이 번역한 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하며, 박지윤의 연구[1]에서 Cronbach's  $\alpha$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2이었다.

- 심리역량(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심리역량은 Luthans 등(2004)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유현숙(2004)의 도구를 박지윤[1]이 사용한 5점 Likert 척도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복원력을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윤의 연구[1]에서 심리역량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역량 전체의 Cronbach's  $\alpha$  .92,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및 복원력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79, .83, .75 및 .82이었다.

- 학업만족(Learning satisfaction)

학업만족은 최석봉(2012)의 도구를 박지윤[1]이 보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개발한 7문항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만족이 높음을 의미하며, 박지윤의 연구[1]에서 Cronbach's  $\alpha$ 는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동료교수활동 1회차 시작 전과 12회차 후 연구대상자들은 연구보조원에 의해 배포된 일반적특성 6문항이 포함된 셸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 측정용 설문지를 체크 후 제출하였다. 처치 전후 설문지의 짝을 맞추기 위해 학번을 기입하도록 하였고, 처치 후 설문 완성된 후 연구자는 전후 설문지의 짝을 맞춘 후 기입된 학번을 삭제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의 취지와 연구 관련 제반 사항인 동료교수활동과정, 실험 전후 설문작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집될 자료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는 신중히 보관하고, 연구자 외 타인에게는 비밀로 하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연구참여에 자발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의 자료에 한하여 연구에 포함시킬 것과 연구 진행 중이라도 연구참여에 대해 철회할 의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중단이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2.5 자료분석

자료수집 후에는 SPSS/WIN 21.0을 활용하여 다음을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구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 방법을 적용하였다.
- 실험 전후 변수들의 평균의 변화는 paired t-test

로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1.2세이었고, 여학생이 73.8%,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가 47.5%,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성적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0%로 가장 많았다. 성격유형은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 토론 선호도는 보통인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0)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ear)		20(1.2)*
Sex	Male	21(26.2)
	Female	59(73.8)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5(6.2)
	to Aptitude	38(47.5)
	consider Employment	37(46.3)
School grades	Low	12(15.0)
	Average	56(70.0)
	High	12(15.0)
Personality	Introvert	26(32.4)
	Middle	43(53.8)
	Extrovert	11(13.8)
Prefer discussion	Low	32(40.0)
	Average	38(47.5)
	High	10(12.5)

\* M(SD)

Table 2. Mea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s and learn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0)

Characteristics	Division	Psychological capitals										Learning satisfaction	
		Self-leadership		confidence		hope		optimism		resilience		M(SD)	F/t(p)
		M(SD)	F/t(p)	M(SD)	F/t(p)	M(SD)	F/t(p)	M(SD)	F/t(p)	M(SD)	F/t(p)		
Sex	Male	0.32(.4)	1.96	0.29(.5)	1.64	-.17(.7)	-1.69	0.06(.7)	0.01	0.15(.9)	-0.17	0.16(.6)	0.52
	Female	0.10(.4)	(.051)	0.09(.4)	(.105)	.03(.4)	(.095)	0.06(.6)	(.994)	0.18(.5)	(.865)	0.08(.6)	(.607)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0.18(.2)		0.04(.4)		-.04(.5)		0.13(.6)		-0.25(.5)		-0.26(.7)	
	to Aptitude	0.10(.5)	0.72(.492)	0.09(.5)	0.72(.490)	-.09(.6)	0.79(.457)	0.00(.6)	0.33(.723)	0.12(.6)	1.98(.145)	0.17(.6)	1.20(.308)
	consider Employment	0.22(.4)		0.21(.4)		.05(.4)		0.12(.8)		0.29(.6)		0.08(.6)	
School grades	Low <sup>a</sup>	0.12(.5)		0.25(.6)		.15(.4)		0.33(.7)		0.35(.9)		0.42(.4)	
	Average <sup>b</sup>	0.19(.5)	0.60(.550)	0.07(.4)	3.05(.053)	-.07(.5)	1.18(.314)	0.07(.6)	2.49(.089)	0.10(.6)	1.25(.291)	0.10(.6)	3.44(.037)
	High <sup>c</sup>	0.05(.4)		0.40(.5)		.03(.3)		-0.25(.9)		0.33(.4)		-0.20(.7)	a <sup>c</sup>
Personality	Introvert	0.09(.5)		0.18(.5)		-.02(.4)		0.03(.6)		0.22(.6)		0.10(.6)	
	Middle	0.22(.4)	0.87(.420)	0.17(.4)	0.79(.457)	-.01(.5)	0.13(.878)	0.09(.7)	0.10(.906)	0.12(.7)	0.35(.705)	0.12(.6)	1.08(.344)
	Extrovert	0.09(.4)		-0.02(.6)		-.09(.5)		0.03(.6)		0.27(.6)		-0.13(.8)	
Prefer discussion	Low <sup>a</sup>	0.14(.5)		0.23(.5)		.07(.4)		0.23(.6)		0.24(.7)		0.22(.5)	
	Average <sup>b</sup>	0.22(.4)	1.14(.324)	0.05(.4)	1.46(.239)	-.06(.5)	1.25(.292)	0.08(.6)	5.84(.005)	0.14(.6)	0.32(.730)	0.00(.7)	1.14(.324)
	High <sup>c</sup>	-0.01(.3)		0.22(.5)		-.18(.4)		-0.53(.9)		0.10(.5)		0.13(.5)	

**Table 3. Changes on Mean values between pre and post experiments of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s and learning satisfaction (N=80)**

Variables	M(SD)		t	p
	Pre <sup>1</sup>	Post <sup>2</sup>		
self-leadership	3.51(.5)	3.67(.5)	3.25	.002
Psychological capital	3.69(.5)	3.78(.5)	2.05	.044
confidence	3.67(.6)	3.82(.6)	2.80	.006
hope	3.94(.5)	3.92(.6)	-.42	.673
optimism	3.48(.6)	3.55(.7)	.86	.395
resilience	3.55(.6)	3.73(.6)	2.50	.015
Learning satisfaction	3.66(.7)	3.77(.6)	2.05	.118

<sup>1</sup> Pre-experiment  
<sup>2</sup> Post-experiment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전후 셀프리더십, 심리역량과 학업만족의 평균 차이

Table 2에서 보면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른 실험 전후 학업만족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분석에서 주관적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토론 선호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실험 전후 심리역량 중 낙관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토론 선호도가 낮거나 보통인 집단의 처치 전후 낙관의 평균차이가 토론 선호도가 높은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별이나 간호학과 입학동기 및 성격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실험 전후 셀프리더십, 심리역량과 학업만족의 차이

Table 3에서 보면 실험처치 전후 셀프리더십과 심리역량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2, .044$ ), 심리역량의 속성 중 자신감과 복원력이 처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6, .015$ ). 처치 후 대상자의 학업만족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4. 논 의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분석에서,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른 처치 전후 학업만족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에서는 주관적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처치 후 학업만족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대상자의 학업만족이 그렇지 않은 대

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13], 적극적인 학습유형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만족이 높았다는 조사연구 결과[14]가 있어 언뜻 보기에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유사한 실험연구결과가 아니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주관적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동료교수자 역할을 하며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동료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학업만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학업만족이 낮고 학업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 동료교수활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필요를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토론선호도는 심리역량의 속성인 주도성, 사회적 등과 관련이 있는데[13], 본 연구결과 토론 선호도가 낮거나 보통인 집단의 처치 전후 낙관성의 평균의 차이가 토론선호도가 높은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실험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조사연구에서 토론선호도가 높은 대상자의 심리역량이 낮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13]와 같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토론선호도가 보통 이하인 대상자가 87.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동료교수 처치는 다수를 차지하는 토론선호도가 높지 않은 대상자들의 심리역량의 속성 중 긍정적인 면을 내면화시키는 낙관성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어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나 간호학과 입학동기 및 성격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동기, 성격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2]와는 유사한 결과였고, 성별이나 주관적 학교성적에 따른 심리만족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5]와는 다른 결과로 이러한 일반적 특성 관련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동료교수활동 전후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료교수 후 비모수통계결과 셀프리더십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지적전략, 행동적전략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2]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처치 전 셀프리더십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결과[1]와 유사한 점수였고, 본 연구에서 처치 후 셀프리더십이 처치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실험처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후 셸프리더십 측정이 가능한데[1]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동료교수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셸프리더십은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탐색하고 연구하여 실행에 옮기고 평가하며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효율증대를 위한 내면적인 탐구로 이끌어가므로[16] 이를 강화하기 위한 증재로 간호대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처치 전 심리역량의 평균이  $3.69 \pm 0.45$  점이었었는데 같은 도구로 측정된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조사연구의 결과[13]나, 일반대학생 대상의 심리역량 측정결과[1], 중국인 간호사 대상의 조사연구[17]에서의 심리역량 점수와 유사하였고, 본 연구에서 동료교수활동 후 심리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연계열학과 대학생들의 경우 심리역량이 높을 때, 창의성이 가중되고 학습지향적이 되어 혁신행동을 경험하게 된다[18]. 본 연구에서 동료교수활동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심리역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므로 간호학 교육과정 중 이론학과목은 물론 다양한 임상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심리역량의 하위영역 중 자신감과 복원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료교수를 적용한 예비연구의 비모수검정에서 동료교수전후 실험군의 '희망'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19]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처치 전 심리역량의 하위영역 중 희망의 평균이 가장 높은 상태인  $3.94 \pm 0.48$ 점에서 실험처치가 수행되었고 처치 후 희망이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았으므로 상반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처치 전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역량 하부요인 중 '희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취업난으로 인해 일반적인 타학과의 경우와 달리 입학 당시 높은 경쟁률에도 간호학과에 합격하여 입학 후 간호학과나 장래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처치 전후 자신감의 유의한 증가는 동료교수자는 수업 후 단순히 자기 학습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료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 더 심도있는 학습을 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학습으로 자신감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나[7], 동료교수활동이 임상술기능력과 자신감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보고[20]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건강교육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과정에 임할 때 건강교육자로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자신감은 자신의 제반 학교생활에 동기부여를 하게 할 것이다[7].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로 주어진 동료교수활동 후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복원력은 난관을 극복하며 실패에 대해 잘 대처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는 등 적응을 위해 노력하거나, 자신의 실수도 수용하고 재도전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이다[5]. 본 연구결과는 2인1조로 5회의 동료교수자 역할을 시행한 예비연구의 결과[19]와 유사한 결과였다. 3회의 동료교수자 역할을 시행한 본 연구결과 처치 후 심리역량 하위영역 점수의 증가가 예비연구로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이지만 5회의 동료교수활동에서의 결과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교수학습에서 동료교수자 역할을 수행한 학생들의 융합인재소양이 동료학습자들보다 더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8]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로 대상을 구분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처치 전 학업만족은 3.6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조사연구[13]결과의 3.53점이나, 일반대학생 대상의 연구[1]의 3.40보다 높았다. 처치 후 학업만족은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학업만족이 증가하였다. 이는 동료교수활동을 중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수업참여도와 흥미도에 있어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동료피드백이나 다양한 사고유도에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학습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학습내용이해도가 더 증가됨은 물론 다양한 융합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8]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습태도나 학습내용이해도의 증가는 학업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업만족은 학업성취의 예측 요인으로 볼 수 있어[21]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동료교수활동에서 동료교수자의 학습태도가 동료학습자에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연구결과[8]가 있어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이에 따른 추후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 5. 결론 및 제언

동료교수활동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셸프리더십, 심리역량 및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연구환경이 학급 간 정보공유의 가능성이 높

음에 따라 대조군을 두기에 무리가 있어 원시실험연구로 진행하였다.

교수자의 강의 후 다음 주에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로 나누어 시행된 조별 동료교수활동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각각 3회의 동료교수자와 9회의 동료학습자로 활동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심리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만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료교수활동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업에 대한 자율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도전적 학습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가능하고 정서나 정신건강에 효과적 대처방안이 될 심리역량 증진을 위해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동료교수활동을 반복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업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전략 및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반복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J. Y. Park. (2017).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 I. S. Jung. (2018). Convergence effects of collaborative peer tutoring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533-540. DOI : 10.15207/JKCS.2018.9.10.533
- [3] T. H. Jung. (2005). Effects of Self Leadership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1), 223-248. UCI : G704-000419.2005.32.1.004
- [4] J. H. Kim.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5] J. B. Avey, F. Luthans, R. M. Smith & N. F. Palmer. (2010).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well-being over tim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5(1), 17-28. DOI : 10.1037/a0016998.
- [6] S. B. Choi. (2012).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and Innovative Behaviour and Study Satisfaction.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1(4), 611-638. DOI : 10.29214/damis.2012.31.4.026
- [7] K. Iwata, D. S. Furmedge, A. Sturrock & D. Gill. (2014). Do peer-tutors perform better in examinations? An analysis of medical school final examination results. *Medical Education*, 48(7), 698-704. DOI : 10.1111/medu.12475
- [8] S. Y. Kang. (202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EAM program in middle school utilizing the Reciprocal Peer Tutoring strategy*. Master'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9] M. Ravanipour, M. Bahreini & M. Ravanipour. (2015). Explori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peer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19(4), 46. DOI : 10.4103/2277-9531.157233.
- [10] S. M. AlShareef et al. (2019). Perceptions On Reciprocal Peer Teaching Among Medical Students As Learners And As Tutor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19(10), 817-827. DOI : 10.2147/AMEP.S220728.eCollection 2019.
- [11] H. J. Kim. (2020). Effect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Applying Reciprocal Peer Tutoring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Core Nursing Skills, and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4), 315-323. DOI : 10.14400/JDC.2020.18.4.315
- [12] H. K. Cho & I. S. Jung. (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25-32.
- [13] I. S. Jung. (2019). Convergenc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55-64. DOI : 10.2156/CS4SMB.2019.9.2.064
- [14] W. Q. Dai. (2014).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behavioral style, learning strategy and satisfaction*. Master' thesis.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15] S. Y. Lee & K. H. Lee. (2018).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69-279.

DOI : 10.15207/JKCS.2018.9.5.269

- [16] J. S. Yi & K. A. Kim. (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9-39.
- [17] J. Hao, D. Wu, L. Liu, X. Li & H. Wu. (2015).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Female Nurse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12(6)*, 6682-6699.  
DOI : 10.3390/ijerph120606682.
- [18] D. H. Ryo. (2015).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apital , Creative Personality, Learning Orientation, and Perceived Inovative Behavio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9] I. S. Jung. (2019).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er Tutoring on Self-leadership, Posit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Satisfaction: A Pilot Stud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7)*, 48-56.  
DOI : 10.2156/CS4SMB.2019.9.7.048
- [20] C. L. Donohoe, J. B. Conneely, N. Zilbert, M. Hennessy, S. Schofield & J. V. Reynolds. (2015). Docemur Docemus: Peer-Assisted Learning Improves the Knowledge Gain of Tutors in the Highest Quartile of Achievement but Not Those in the Lowest Quartile.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72(6)*, 1139-1144.  
DOI : 10.1016/j.jsurg.2015.07.001
- [21] J. C. Lee.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ult Learner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Major Commitment, and Happiness: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85-113.

정 인 숙(In-Sook Jung)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leejung@naver.com